

도로 유지보수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강고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 수석연구원

도로 유지보수사업은 공공 인프라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업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국토사무소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 제도와 운영 기준은 사업 특성과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합 발주의 법적 기준인 공종 유사성과 현장 간 직선거리 20km 요건이 선형적 특성을 지닌 도로공사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관리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감독 인력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평균 3~4명의 감리 인력이 연간 40여 건의 공사를 담당하는 현실에서는 업무 부담이 과중하며, 이동거리 한계로 인해 현장 점검이 부족해지고 서류 행정업무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위험 요소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어렵게 하여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더불어 국토사무소 발주 공사의 상당수가 영세 시공업체에 의해 수행됨에 따라 전문인력과 안전장비 부족이 병존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건설사업관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인프라의 확충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유지보수 중심의 사업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고려하면, 도로 유지보수사업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향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본 연구는 도로 유지·보수사업의 발주 및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최근 사례와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사업에 적합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과 발주 가이드라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